

# 사료선택의 문제점

— 편집부 —

## 사료선택을 닭의 입장에서 하자

가축을 기르는 궁극적 목적은 수익을 얻으려는 데 있다. 양계생산비에 사료비가 70% 이상을 차지해 사료의 선택은 농장생산성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양축가들은 사료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양축가들의 일반적인 사료선택 기준은 첫째 가격에 의한 선택, 둘째 생산성에 의한 선택, 셋째 인간관계, 넷째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사료를 선택하고 있다.

양축가가 사료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료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사료의 경우 시험을 하려면 1년이 넘는 긴시간을 필요로 하며, 사양기간중 사료를 바꾸어도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양축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봄철에 질이 떨어진 사료를 먹여 체력이 저하되고 질병이 잠복해 있었는데 좋은 사료로 바꾸어도 여름철 무더위와 사양관리 잘못을 이유로 거꾸로 나쁜 사료의 결과가 좋은 사료를 먹일때 나타날 수도 있다.

양축가의 60~70%는 사료선택 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다. 사료의 품질을 알기가 어려우며 그래서 품질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싼사료를 선호하게 된다.

사료회사마다 일정수준 이상의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료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료의 품질이 같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보여진다.

## 현찰사료가 이득이다

사료의 외상거래는 대다수 양축가가 이용하고 있다. 외상사료는 사료회사에서 양축가에게 빌려주는 자금으로 볼 수도 있다. 외상사료는 영세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던 초창기 축산발전에 활력소를 불어 넣으며 축산부흥에 큰 역할담당을 하였다.

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을 적게 가지고 남의 돈 빌려 장사하는데 양계업도 남의 돈(외상사료)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자금은 특혜를 받은 장기처리자금인 반면 사료외상은 통산 월 2~3%의 이자가 부가되어 연30%정도 고율의 자금을 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외상사료는 농장규모를 자기자본능력 이상 무리한 확장에서 온 자금부족으로 찾게 된다. 주변의 양계장보다 규모를 크게하여 전시효과를 노리는 허영심, 내실있는 경영보다 일시에 큰 돈을 벌어 보겠다는 도박심리 등으로 규모가 능력이상으로 커져 자금압박을 가져온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을 경우 외상사료는 불가피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지만 농장경영 자체를 사료외상에 의존한다는 것은 농장경영에 불리함을 인식해야겠다.

자금압박으로 외상사료를 찾고 경영부실을 초래하여 더 큰 자금압박을 받은 악순환에서 탈피하려면

허황된 심리를 버리고 의존적 의식을 버려야 한다. 자기규모에 맞는 적절한 규모를 선택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경영 모색이 필요하다.

### 외관 평가는 정확치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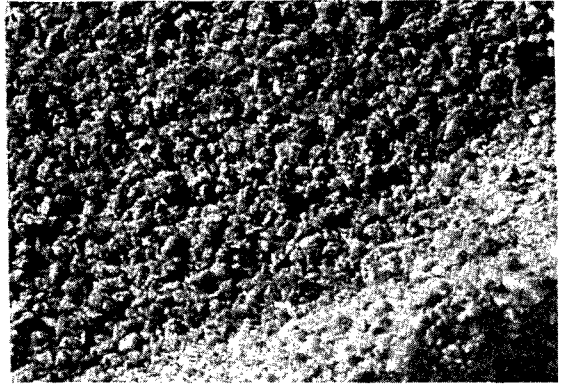
농장에 사료가 도착하면 가축이 사료를 먹기 전에 사람이 먼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게 된다. 이때 외관만을 보고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사료제조는 먼저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을 맞춘 후 여기에 맞는 사료의 배합비를 짜게 된다. 이때 경제성을 고려하여 원료의 가격변화나 원료의 부족으로 배합비가 변화하게 된다. 옥수수과 소맥, 대두박과 기타박류를 대체하기도 하여 원료의 변화로 인한 색깔이나 굵기 등 외관의 변화, 감촉과 냄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사료 관계자는 사료의 외관이 변화하였을 때 양축가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관찰하게 되어 사료품질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발견되지 않던 문제점까지 지적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직도 사료에 옥수수가 많으면 좋은 사료인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느 사료회사는 사료색을 노랗게 하기위해 값비싼 그루텐을 쓴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양축가가 본 외형이 아닌 가축이 필요로한 사료속에 있는 영양성분이다.

그러나 사료회사가 양축가를 우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육계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봄철에 사료의 질을 높여 성수기에 매출을 늘려놓고 질을 떨어뜨려 양축가를 골탕먹이는 회사, 판로를 개척하지 위해 일시적으로 질을 높혀 공급하는 회사가 있었다. 반대로 이를 이용하여 봄에만 좋은 사료를 쓰고 다시 자기사료를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사료는 품질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원료의 변화도 적은 사료가 좋겠지만 신용있는 회사의 사료를 외관의 변화로 품질까지 변화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료원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어 양축가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



는다.

### 사양증 문제발생시 다각적 검토 필요

가축을 기르는 도중 갑자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같은 사양관리를 해왔다면 사료와 약품을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농장 외적 요인과 내부의 문제로 올 수 있다. 전적으로 외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농장내의 문제점 확인을 소홀히 하는 양축가도 있다.

사료회사 한 관계자는 농장에서 사료가 문제가 있다하여 현장에 가보면 80%는 사료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질병이나 사양관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닭이 흡수불량증후군에 감염됐을 경우 외관증상이 특정 영양소 결핍증상으로 나타나 사료에 책임을 전가하게된 경우도 있다. 질병이 유사성으로 많이 나타나 그 질병으로 아닌 뚜렷한 증상이 아니면 질병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때 관리에 소홀하면 질병이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산란율 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농장을 관리자에게 맡기고 농장주가 관리에 소홀한 경우는 관리자들이 잘못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이때도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게된다.

이러한 경우 일부 양축가들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료를 바꾸게 되는데 농장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료를 바꾸어도 그문제는 계속 내포되



**사료의 경제성 검사는  
매우 어렵지만  
자기의 경험과  
주변 모범농가의 성적을  
참고하여 터득해야  
한다.**

어 있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양중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사료, 약품, 병아리, 사양관리, 질병, 환경, 관리자 등 모든 요인을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판단기준이 애매하다고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외부로만 전가하는 것은 지향해야겠다.

#### 사료회사의 서비스는 돈이다.

좋은 사료를 싸게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말할나위 없다. 좋은 사료를 구별하기도 어렵지만 싼 사료의 개념정립도 필요하다.

서비스는 곧 돈으로 평가해서 사료와 더불어 상품으로 파는 회사와 서비스부문을 전혀 배제하고 사료 자체만을 판매하면서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회사도 있다. 서비스는 양축가를 위한 모든 정보로 사양관리기술, 질병발생추이, 시세입추상황정보 등을 말할 수 있다.

초보자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사료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겠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서비스가 없어도 싼사료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능한 양축가라도 소홀히하여 빠뜨릴 수도 있는 점도 있고, 자기의 실수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료회사 직원들이 같이 관찰하여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다.

사료회사 직원이 농장에 드나들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료비에서 지불되는 돈이라 보아도 무방하

다. 이들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도 사료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사료회사 직원이 농장에 들러 사양관리의 헛점을 지적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를 선택해야 하며 판매만을 위해 떠벌이고 비위맛 추며 다니는 사료는 선택하지 않은게 현명하다.

사료업은 타제조업과 달리 영업비용이 외형에 비하여 적고, 농장에서는 정보수집에 난점이 많아 이를 버려지는 낭비적 요소로 보기보다는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진다.

#### 최대이윤을 주는 사료를 선택해야

값이 싼사료를 선택해야하나사료의 품질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한다.

수익을 목적으로한 축산업에서는 최소비용을 위한 사업보다는 최대이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즉 어느 사료를 이용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냐가 진정한 의미에서 싼사료라 볼 수 있다.

사료의 경제성검사란 극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자기의 경험과 주변의 모범농가의 성적을 참고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기록을 하면서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사료의 경제성 면에서도 농장경영의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선택이 망설여질 때는 사료회사의 신용도나 평소의 축산에 대한 의지를 보고 선택해도 큰 오류는 범하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양계**